

전주 위상 회복 위한 큰 그림 강조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 “모든 책임은 시장이, 공직자는 당당하게 일해 달라”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전주시 15개 실·국장 참석 업무보고 총평 진행

제40대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전주시 15개 실국의 주요 현안 파악 등 업무보고를 마무리한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이 현년 전주의 위상 회복을 위한 장기 계획을 강조했다. 당선인은 일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짊어지겠다고 모든 공직자는 전주의 발전을 위해 당당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을 비롯한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2일 한국전통문화전당 회의실에서 전주시 15개 실·국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우 당선인을 비롯한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2일 한국전통문화전당 회의실에서 전주시 15개 실·국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당선인은 “앞으로 주어질 4년의 임기 동안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추락한 전년 전주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일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전주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여러 결림돌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일들은 모두 들춰내 다시 살펴보겠다”며 “전주의 발전이라는 뚜렷한 목적과 시인별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일을 이뤄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특히 공직자들에게 일 잘하는 공무원, 품위를 지키는 공무원, 당당한 공무원이 돼 줄 것을 강조했다.

우 당선인은 “일을 하다가 생기는 문제는 100% 제가 책임지겠으니 업무에 있어 거침없고 당당하게 임하라”며 “앞으로 주요 현안과 관련해 결정이 늦어져서 일이 진행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 13일부터 15개 실국의 업무보고를 통해 시정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사업을 점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한옥마을에서 무더운 여름밤을 다채로운 음악으로 가득 채운 한옥 정원 콘서트가 펼쳐진다.

‘여름밤 한옥 정원 콘서트’

전주시, 한옥마을을 체류형 관광 위해 8월까지 20회 운영

전주한옥마을에서 무더운 여름밤을 다채로운 음악으로 가득 채운 한옥 정원 콘서트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25일부터 8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한옥마을 내 마당이 아름다운 한옥정원에서 ‘여름밤 한옥 정원 콘서트’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옥 정원 콘서트는 여행객들에게 소담하게 아름다운 정원을 보유한 한옥들을 소개하고 전주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한옥마을에서 하루 더 머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콘서트는 한옥마을 인증제인 ‘한옥의 별’ 인증증소를 중심으로 진행돼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여행객들이 마당이 넓고 아름다운 한옥에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다.

심어송라이터 김은중, 이상욱밴드, 문화포럼 나니레, 이희정 밴드

/김윤상 기자

서신지하차도 호우·결빙 피해 대비 일제 정비

전주시 완산구, 침수상황 자동 차단시설 설치·결빙방지시설 성능 개선공사 추진

전주시 완산구(청장 김병수)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겨울철 결빙에 대비한 통일광장 지하차도 정비에 들어간다.

완산구는 서신동 롯데백화점 앞 통일광장 지하차도에 다음 달 초까지 특별교부세 2억5000만 원 등 총 5억5000만 원을 투입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제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완산구는 이 사업을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시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겨울철 도로 결빙에 대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기존 결빙방지 시설(열선)의 전도율을 향상시키는 작업과 함께 노후도로 재포장과 미끄럼 방지 포장도 추진할 예정이다.

완산구는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된 신속한 작업추진을 위해 오는 28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서신 지하차도를 전면 통제한다. 구는 지하차도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사계절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돼 재난상황은 물론 평소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통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신속히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교통문제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대상자 50명 모집

전주시가 학업과 취업, 생업 등으로 지친 청년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35개 동 주민센터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사업인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이용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는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18~39세

청년 중 인바디 측정결과 과체중 이상인 대상자들에게 △운동 및 건강프로그램 △자세 체형교정 운동 서비스 등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이며, 소득과 재산 등 별도의 선정기준 없이 인바디 측정결과 과체중 이상인 대상자만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바우처를

활용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 가격은 정부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합산된다.

이용자 모집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 새소식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자나 전주시 생활복지과(063-281-2311)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거나 정신건강 진료 등에 대한 전문심리상담서비스가 필요한 만 18~39세 청년 중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 대상자 30명을 선정해 약 3개월 동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오는 8월에도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 대상자를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eye1004건강두드림서비스 △야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연령대의 13개 사업 이용자 2310명을 모집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꿈드림,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교육박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는 22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및 현장감 있는 직업 체험을 위한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Dream Maker’를 운영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다양한 진로탐색 및 직업 체험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맞춰 전주지역 대학과 우수한 양질의 진로체험처 연계를 통해 직업실무체험형(은행원)과 학과체험형(치과위생사)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참여한 청소년들은 NH농협은행 전북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진행된 ‘은행원 직업 체험’ 시간을 통해 유니폼을 갖춰 입고 1일 행원으로서 업무를 직접 체험해보고 특색있는 금융소

자 교육도 받았다. 청소년들은 2인 1조로 짝을 이뤄 △은행 창구 체험 △신비한 금고 체험관 △자산관리 금융보드게임 △금융권 직업 알아보기 △청소년금융교육 등을 경험했다.

학과체험형의 경우 기전대학교 치위생학과 실습실로 찾아가 치위생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우고, 업무 실습을 통해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탐색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청소년들은 △Q-ray 촬영을 통한 치면세균막 및 치아우식증 관찰 △위상차 현미경을 통한 구강내 세균 관찰 △덴티폼 치석제거(스케일링) 실습 등을 경험하며 진학 및 진로의 꿈을 키웠다. /김윤상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